

“관세 협상, 시간 걸리지만 ‘합리적 합의’ 도달할 것”

이 대통령, APEC 앞두고 CNN 인터뷰
“우리는 동맹이며, 상식과 합리성 공유
트럼프·김정은 만나게 된다면 좋은 일”
깜짝 회동 성사 가능성에 의견 밝히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해 “결국 양국은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자리에서 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CNN 기자의 질문에 “(한미 관세 협상은) 결국 우리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에게 평화의 중재자(peacemaker)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김 위원장이 지금 이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

나’라는 질문에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미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미 상무부 정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아미 기자

美·EU “北, 미사일 발사 규탄…불법행위 자제 촉구”

美 “한·일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
EU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중단해야”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

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서면 답변으로 “북한의 복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 일본과 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미국의 개개인,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

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EU는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이뤄져, 북한이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미군, 중남미 ‘마약 선박’ 8번째 격침

헤그세스 장관 “테러리스트 2명 살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마약 선박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어제(21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동태평양에서 지정 테러조직이 운영하고 마약 밀매를 수행 중인 선박에 치명적인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선박은 우리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알려진 마약 밀수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고,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공해상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선박에 타고 있던 2명의 마약 테러리스트는 살해됐으며, 미군 병력에는 피

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한 이번 공격은 미군이 중남미 국가의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하며 격침한 8번째 사례다.

그간 미군이 선박을 격침한 수역은 모두 카리브해였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해안에 독극물을 들여오려는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 어디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며 “알카에다가 우리 본토에서 전쟁을 벌였듯이 이카르텔들도 우리 국경과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피난처도 용서도 없고, 오직 정의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도 선박을 격침하는 짧은 동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소형 선박이 바다에서 전진하다 갑자기 폭발한 뒤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

美, 다카이치 日총리에 “미·일 동맹 강화”

루비오 장관, 총리 선출 축하 메시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된 것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축하 성명에서 “미국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그녀의 정부와 협력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실현할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축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일본시간으로 지난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

반 득표를 했다.

참의원(상원)에서도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자민당의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자 미리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